

시페퍼스 “스마트 배구로 더 높은 곳 향해 나아가겠다”

광주서 미디어데이...키 플레이어 박정아 “모든 경기 다 이기고 싶다” 이고은 “좋은 토스로 박정아 뒷받침”...주장 이한비 “승수 더 늘릴 것”

광주 AI페퍼스가 창단 후 세번째 시즌에서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페퍼스는 2021-2022시즌 3승 28패(세트 득실률 0.244)를 기록했고 2022-2023시즌 5승 31패(세트 득실률 0.347)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페퍼스는 19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체육회관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고 올시즌 달라진 모습을 선보이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언 페퍼스 단장은 비시즌 기간 영입한 선수들을 언급하며 “새로운 도약을 위해 상위권 진입을 목표로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의 자양분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자유계약선수(FA) 시장에서 영입한 아웃사이드 히터 박정아, 채선아 등이다. 내부 FA인 아웃사이드 히터 이한비, 베테랑 리베로 오지영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페퍼스가 3년 총액 23억2500만원에 영입한 박정아는 키 플레이어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수비가 공격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는 박정아는 “부족한 부분은 더 노력해서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공격력이 강점이기 때문에 장점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퍼스가 제일 밑에서 올라가는 팀이기 때문에 부담은 없다. 재미있게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 같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페퍼스는 오는 29일 열리는 2023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코보컵) 개막전에서 한국도로공사와 조우한다. 박정아의 친정팀이다.

박정아는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이기고 싶은 마

음은 없고 모든 경기를 다 이기고 싶다”면서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고 코트밖에서도 팀을 돕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공사에서 박정아와 합을 맞췄던 세터 이고은은 “처음 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땐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면서도 “그만큼 팀에서 저를 신경 써준다는 것이니까 솔직히 감사대리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돌아왔으니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고은은 도로공사에서 트레이드된지 6일만에 페퍼스로 다시 복귀했다.

이고은은 “언니(박정아)가 공을 잘 때릴 수 있도록 좋은 토스를 해야 한다”면서 “현재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에 돌입하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장 이한비는 “팀 분위기는 예전과 같이 좋다. 새감독과 멤버가 생겨서 더 힘이 나는 것 같다”면서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승수를 올리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게 목표다. 선수들도 한마음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팀의 맏언니 오지영은 베테랑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페퍼스에는 젊은 선수들이 많다. 이들의 장점은 선배들이 플레이를 알려주면 곧바로 터득하는 등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베테랑들이 중심을 잘 잡아주면 올해 코트에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을까 생각한다. 제가 팀의 기둥이 돼 탄탄하고 단단한 팀으로 도약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오지영 포즈에 웃음 만발
광주 시페퍼스 선수단이 19일 광주시 서구 광주시체육회관에서 미디어 데이를 열었다.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는데 웃음이 터졌다. 박정아(왼쪽부터)·오지영, 조 트린지 감독, 이고은, 이한비, 임제이 필립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트린지 감독 “발전 통해 봄 배구 적합한 팀 만들 것”

라운드마다 다양한 전술 구사

조 트린지(36·Joe Trinsey) 광주 시페퍼스 감독이 자신이 추구하는 플레이를 ‘스마트 배구’로 압축했다.

트린지 감독은 19일 광주체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 데이에서 “다른 팀은 부담을 느끼지만 우리 팀에게는 쉬운 플레이라고 스마트 배구를 설명했다. 우리팀에게는 익숙해 간단한 플레이가 상대팀에게는 복잡하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했다.

트린지 감독은 “이를 위해서는 속도, 코트에서 움직임 등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면서 “페퍼스가 추구하는 스마트한 배구, 빠른 배구, 건강한 배구가 제가 감독으로서 가진 목표와 일치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페퍼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정규시즌 여섯 라운드 동안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린지 감독은 “V리그는 1~6라운드로 길기 때문에 똑같은 전술을 유지하면 팀에게 큰 약점이 된다”며 “리그가 진행될수록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급선무로 선수 개인의 기량파악을 꾀했다. 트린지 감독은 “한국배구, 아시아 배구에 대해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알고 있지만, 페퍼스 구단은 물론 선수들 개인의 능력을 전혀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리그 첫 경기를 이기고 매라운드 발전함으로써 봄 배구에 적합한 팀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오는 29일 개막하는) KOVO컵

은 우리팀 전력은 물론 선수 기량을 파악하고 상대팀의 전력을 가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그 개막전에 출전할 라인업을 구체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그는 올시즌 목표에 대해 “항상 기대치를 낮춰 시작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린지 감독은 2013년부터 미국 여자대표팀 분석관 겸 코치로 일했다. 미국은 2014년 세계선수권과 2015년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 2016 리우 올림픽에선 동메달을 땀다. 2021년 북중미선수권에선 미국 여자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 캐나다 남녀 대표팀 코치도 역임했다.

AI페퍼스, 지역 연고 선수 육성 의지 ‘안보이네’

“선수 방출·영입 감독·코치 권한” 김동언 단장 유보적 입장 보여 구단 운영 난맥상 공개 사과도

광주 AI페퍼스가 지역 연고 선수 영입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김동언 광주 시페퍼스 단장은 19일 광주체육회관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지역 연고 선수 방출에 대해 “선수 방출과 영입은 전적으로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권한”이라면서 “코칭 스태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해와 올해 광주체고 출신 손은진과 이은지를 방출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페퍼스는 이들을 지역

선수 육성차원에서 영입했다.

김 단장은 광주 연고 출신 선수 영입에 대해 확답을 미뤘다.

그는 “선수나 훈련 방식 등은 단장들이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 앞으로는 감독, 코치들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밝혔다. 구단의 의지가 없다면 감독이 지역 출신 선수를 뽑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연고 선수 영입에 발을 뻐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페퍼스는 구단운영의 난맥상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 사과도 했다.

김 단장은 “팬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든다. 불찰이다”라며 “앞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사과했다.

이고은을 보충선수로 뽑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저희 생각이 너무 단순했다”며 “이고은은 선수도 도로공사에서 왔으니까 당연히 고르지 않겠다고 판단했었다”고 설명했다.

이고은은 2021-2022시즌이 끝난 뒤 한국도로공사에서 3년 총액 9억9000만원에 페퍼스로 왔다. 올해 4월 자유계약선수(FA) 박정아와 계약한 페퍼스는 원소속팀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선수로 주전 세터 이고은을 넘겼다.

일각에선 페퍼스가 새로운 세터를 영입하려는 행보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페퍼스의 단순 실수였을 뿐이었다.

페퍼스는 올해 2월 신입 사령탑으로 선임했던 아현 김 감독이 4개월 만에 사퇴하는 상황에 부딪히기도 했다.



산체스 최성원 이충복

프로당구 첫승 간절한 ‘베테랑 신입들’

오늘부터 PBA 하나카드 챔피언십 산체스·최성원·이충복 재출격

호 최성원(휴온스), 이충복(하이원리조트) 등은 이번 시즌 프로 무대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이들은 앞선 두 차례 투어 대회에서 나란히 1라운드 탈락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산체스는 개막전과 2차 투어에서 각각 황동희(에스아이), 다비드 마르티네스(스페인·크라운해태)에게 패했고, 최성원은 박한기와 비틀 위마스(튀르키예·웰퍼저축은행)를 만나 고배를 마셨다.

대진운이 나뉘면 이충복은 아드난 욘셀(튀르키예), 세미 세이키너(튀르키예·휴온스) 등 튀르키예 강호와 출몰이 만났다.

험난한 적응기를 겪는 이들은 이번 대회도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난다.

산체스는 준우승 경험이 있는 응고 딘 나이(베트남·SK렌타카)와 22일 오후 10시 30분 대결하고, 최성원은 김재섭과 23일 오후 2시 30분, 이충복은 김재근과 22일 오후 3시 30분에 만난다.

이밖에 국내 최강자 조재호(NH농협카드)는 임완섭과 23일 오후 9시 30분부터 경기하고, 바로 옆 테이블에서는 강동궁(SK렌타카)이 아동복을 상대로 대회 첫 경기를 치른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2관	엘리멘탈
3관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인시디어스: 빨간 문, 그녀가 좋아하는 것은
4관	엘리멘탈, 극장판 아름다운 그: 이터널
5관	바비
6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9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더 선
7관	사내카툰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인시디어스: 빨간 문
8관	사내카툰 여름날 우리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 134회 정기연주회
평화를 향한 여정과 진혼
일시 : 2023-07-25(화) 19:3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415-5403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 III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 2023-08-26(토)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 062-613-8235